

# KIA, 7년만에 개막 축포... 'V12' 시동



지난 2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카운과의 2024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범호 감독에게 값진 첫승을 선물한 KIA 선수단이 경기 후 이범호 감독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최원준 '마수걸이 대포' 등 13안타 폭발...키움戰 7대5 이범호 공식사령탑 데뷔전 승리, 24일 경기는 우천취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7년 만에 정규시즌 개막전 승리를 거뒀다. KIA는 지난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솔(SOL)뱅크 KBO리그 키움과의 1차전 홈 경기에서 크로우와 불펜의 호투, 최원준의 썬기포를 앞세워 7-5로 승리했다. KIA는 이날 승리로 2018년 이후 이어진 개막전 6연패 사슬을 끊었다. 이범호 감독도 공식 사령탑 데뷔전에서 승리 기쁨을 만끽했다. 선발 투수로 나선 새 외국인 투

수 월 크로우는 5%이닝 동안 6피안타(1피홈런), 1볼넷, 5삼진, 5실점(4자책)으로 다소 고전했으나 타선과 불펜의 도움을 받아 KBO 데뷔승을 따냈다. 타선에서는 9회까지 장단 13안타가 터졌다. 최형우가 3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고, 박찬호와 소크라테스, 이우성, 김태군도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성공률 100%를 기록한 팀 도루 4개도 공격에 힘을 보탤다. 이우성(1회)과 김선빈(1회), 소크라테스(4회), 김호영(7회)이 각 1도루씩 기록, 누상을 취하면서 키움 마운드를 흔들었다.

불펜진의 안정적인 무실점 피칭도 키움의 추격을 뿌리치고 승리에 기여했다. 크로우에 이어 6회 2사 1루에 마운드에 오른 박도규는 추가 실점을 막으며, 데뷔 첫 홀드를 기록했다. 7회에는 전상현이 1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끝냈고, 8회에는 최지민이 세 타자를 범타로 정리했다. 9회는 마무리 정해영이 1볼넷 무실점으로 이닝을 매조지으며, 시즌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 후 "선수들이 최선을 다 해준 덕분에 감독 첫승과 개막전 연패를 끊을 수 있었다"며 "모든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고 개막전 승리 소감을 밝혔다. 이 감독은 이어 "정말 많은 팬들이 야구장 오셔서 응원해주니깐 가슴이 벅차 올랐다"며 "올 시즌

팀이 꼭 좋은 성적이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전국 5개 구장에서 막을 올린 2024 프로야구 개막전에는 전 구장 매진을 기록하며 올시즌 프로야구의 뜨거운 팬심을 반영했다. KBO에 따르면 KIA와 키움의 경기가 열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는 개장 10주년을 맞아 2만5000명의 관중이 찾아 개막전 경기장을 꽂 채웠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만원 관중은 2019년 7월13일 이범호 KIA 감독의 선수 은퇴식 이후 5년여 만이다. 한편, 24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예정이던 KIA와 키움의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주홍철 기자



## '압도하라 Always KIA TIGERS'...팬북 발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4 시즌 팬북(사진)을 발간했다. 올 시즌 팬북은 선수들의 프로필 사진을 담은 화보집 형태로 구성됐다. 팬북 표지는 강렬한 인상의 호랑이 이미지로 우승에 대한 선수단의 굳은 결의를 표현했으며, 2024 캐치프레이즈인 '압도하라 Always

Always KIA TIGERS'를 함께 부각시켰다. 선수단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새 사령탑인 이범호 감독의 인터뷰도 담았다. 또한 지난 시즌 경기의 주요 장면과 올해 스폰서캠프의 훈련 스케치, 2024 시즌 응원단의 화보도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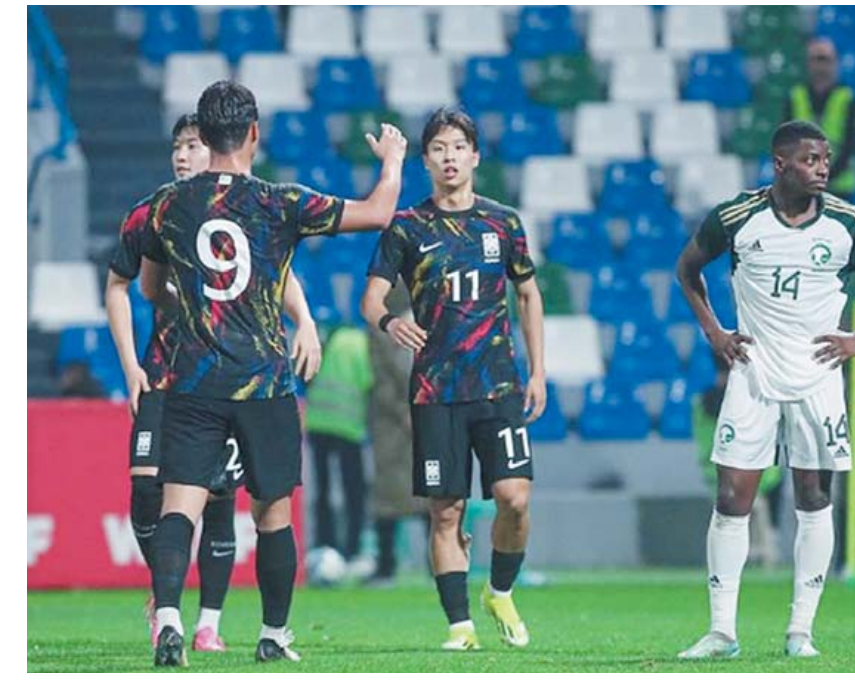
올해 팬북은 구단 공식 상품 매장인 KIA 타이거즈 팀스토어에서 1만원에 판매된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내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 매장에서는 오는 28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온라인 팀스토어(https://teamstore.tigers.co.kr/)로 하면 된다. /주홍철 기자

# '엄지성 결승골'

## 홈팀 사우디 꺾고 2024 WAFF U-23 챔피언십 결승 진출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2024 아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십 준결승에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결승에 올랐다. 한국 대표팀은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알 무바라크의 알 파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사우디를 상대로 전반 41분 터진 엄지성(광주)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겼다. 우리나라는 오는 27일 오전 5시 호주와 대회 결승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내달 15일부터 카타르에서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해 열리는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아컵 전조전 성격 대회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

는 한국을 필두로 호주,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태국, 아랍에미리트까지 8개국이 출전했다. 전반 13분 백상훈(서울)의 중거리포로 공세를 시작한 한국은 전반 23분 홍시후(인천)의 오른발 슈팅이 사우디 골대 오른쪽 옆 그물에 꽂히며 아쉬움을 남겼다. 사우디의 반격도 거세다. 전반 38분 페넬티아크 부근에서 사우디에 프리킥을 내준 한국은 골키퍼 백중범이 수화이드 알자이드의 오른발 슈팅을 몸을 날려 막아내 위기를 넘겼다. 실점 위기를 넘긴 한국은 전반 41분 엄지성의 득점포가 터지며 승리를 예감했다.



결승골을 합작한 배준호(왼쪽)와 엄지성(가운데) <WAFF SNS 캡처>

후방에서 투입된 불이 사우디 수비수에게 맞고 흐르자 배준호(스토크시티)가 잡아 페넬티지역 왼쪽으로 뛰어

든 엄지성에게 찰라졌고, 엄지성은 오른발 슈팅으로 골맛을 봤다. 엄지성의 득점은 결승골이 됐다. /연합뉴스



2024 국제유도연맹(IJF) 트빌리시 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혜경(왼쪽 두번째)이 시상식 후 금메달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제유도연맹 제공>

# 광주교통공사 이혜경 트빌리시 그랜드슬램 '金'

'한국 여자 유도 기대주' 이혜경(28·광주교통공사)이 2024 국제유도연맹(IJF) 트빌리시 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혜경은 지난 23일 조지아 트빌리시 올림픽 스포츠 팰리스에서 열린 여자 48kg급 결승에서 에스파냐의 로라(프랑스)를 허리아돌리기 한판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혜경이 IJF 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혜경은 경기 시작 후 1분20초만에 지도(반칙) 1개를 뺏었고, 40여초 후 몸싸움을 펼치다 상대 선수를 뒤로 메치면서 경기를 끝냈다.

이혜경은 1회전에서 아스미타 데이(인도)를 허리아돌리기 한판승으로, 2회전에서 에드나 카리요(멕시코)를 반칙승(지도 3개)으로, 8강전서 귀종잉(중국)을 업어치기되치기 한판승으로 연파했다. 준결승에서는 걸리아 틴바예바(카자흐스탄)에 반칙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IJF 올림픽 랭킹 18위인 이혜경은 지난 6일 대한유도회가 발표한 2024 파리 올림픽 우선 선발 선수 명단에도 이미 이름을 올렸다. 이혜경은 이번 대회 금메달로 올림픽 랭킹포인트 1천점을 획득, 순위를 끌어올렸다. /박희중 기자



제11회 대신육가공회장배 중학교 야구대회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동성중 선수단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 전국소년체전 광주대표 출전

동성중 김민재 '대회 MVP' 동성중이 제11회 대신육가공회장배 중학교 야구대회 겸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동성중은 지난 18-22일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4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광주지역 5개 팀(동성중, 무등BC, 진흥중, 충장BC, GJ스타즈BC)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승부를 가렸다. 동성중은 첫 경기 충장BC를 5대2로

꺾고 첫승을 신고했고, 이어 진흥중과의 두번째 경기에서 8대5, GJ스타즈BC와의 세번째 경기에서 8대0(5회 풀드승)으로 승리했다. 동성중은 무등BC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8대5, 1점차 승리를 거두며 전승 우승을 이뤄냈다. 우승팀 동성중은 오는 5월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에 광주대표로 출전한다. 동성중 김민재는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됐고, 동성중 이승빈과 충장BC 장우준은 각각 우수투수상과 타격상을 수상했다. /박희중 기자

# 장은실,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금'

## 장동혁, 자유형 97kg급 '銅'

전남도체육회 레슬링팀 장은실이 제42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장은실은 지난 21일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자유형 -68kg급 결승전에서 김유빈(용인대)을 10대0으로 꺾고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장은실은 1회전에서 최유정(충북보건과학대)에게 10-0 승리, 2회전(준결승)에서 권즈민(인천환경공단)을 상대로 3대1로 폴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남자일반부 자유형 -97kg에 출전한 장동혁(전남도체육회)은 1회전에서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한 장은실과 장동혁

부전승을 거두고 2회전에서 이현우(인천골드레슬링팀)에게 10대0으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최민기(충남도청)에게 3대1로 패해 동메달에 만족해야했다. /박희중 기자